



(2026년 7월 9일 목요일 18면)

제10대 송파구의회 개원...위민의정 대장정

송파구의회(의장 손병화)가 지난 7일 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제10대 송파구의회 개원식을 개최하고, 65만 구민의 민의를 대변할 향후 4년간의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이날 오후 2시에 거행된 개원식에는 제10대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된 손병화 의장과 조용근 부의장을 비롯한 구의원 27명 전원이 참석했으며, 민선 9기 임기를 시작한 서강석 송파구청장과 국·소장 등 집행부 주요 간부 공무원들이 대거 자리를 함께해 제10대 의회의 힘찬 출발을 축하했다.

본 행사에서는 손병화 의장을 중심으로 총 27명의 구의원들이 65만 주권자 앞에 당당히 나서 법령을 준수하고 송파구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 그리고 행복 추구에 앞장설 것을 엄숙히 다짐했다. 의원들은 구정의 건전하고 균형 잡힌 발전을 위해 의원직을 공정하고 성실히 수행하겠다는 내용의 의원 선서를 한 목소리로 낭독하며 확고한 사명감을 다졌다.

이어 조용근 부의장이 단상에 올라 의원 전원을 대표해 주민의 진정한 대변자로서 청렴성과 품위를 유지하고, 사익보다 공익을 우선하며 주민의 생생한 의사를 구정에 투명하게 반영하겠다는 요지의 '송파구의원 윤리강령'을 낭독했다.

손병화 의장은 개원사를 통해 "부족한 저에게 10대 전반기 의장이라는 중책이자 영광스러운 임무를 맡겨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가슴 깊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의장이라는 엄중한 자리가 주는 무게감과 사명감을 잊지 않고, 오직 65만 송파구민의 복리 증진과 우리 구의회의 민주적



손병화 송파구의회 의장이 개원사를 하고 있다.

발전을 위해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의장직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손 의장은 "우리 송파구의회는 집행부가 추진하는 수많은 주요 정책과 대규모 사업들이 진정 구민의 뜻에 부합하는지, 구민의 소중한 혈세와 예산이 낭비 없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되는지 철저히 감시하고 날카롭게 견제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다만 "견제를 위한 견제에 머물지 않고, 오직 구민의 행복을 위한 올바른 정책과 유익한 행정에는 아낌없는 성원과 초당적인 지원을 보낼 것이며, 구민의 삶을 풍요롭게 가꾸는 민생 정치에는 의회가 먼저 손을 내밀고 가장 앞장서서 전폭적으로 협력하겠다"고 상생의 약속을 덧붙였다.

홍준성 기자/roff1116@naver.com